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설교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 미원주민선교주일 설교 자료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미원주민선교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사도행전 2:14a, 36-41을 기초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예** 배 중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땅에 대한 선언으로 설교를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_\_\_\_\_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살았던 미원주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미원주민 부족 지도 참조: <https://native-land.ca/>) 부족이 살고 가꾸어 온 곳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 기억되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 함께 엮여 있습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인 오늘뿐만 아니라 또 매일 매일, 우리는 과거의 해악을 치유하고, 자각과 존중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며, 최초 미국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념합니다.

미원주민 공동체와 관련된 감리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 대량 학살과 트라우마에 우리가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1863년에 있었던 샌드크릭대학살(Sand Creek Massacre)을 주도했던 이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마을은 파괴되고 230명이 학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 2/3는 여성, 어린이, 노인이었습니다.

미국 내의 기숙학교들은 (감리교인들이 운영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미원주민 어린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 중 캔자스주 페어웨이의 쇼니감리교인디언노동학교(Shawnee Methodist Indian Manual Labor School)와 앨라배마주 미첼의 애즈베리노동학교(Asbury Manual Labor School)는 감리교인들이 설립한 학교들입니다.

또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원주민 여성 및 소녀들의 실종과 살해라는 전염병에서 등을 돌렸습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선교주일

# 설교 자료

분명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는 걸요. 이 말씀은 제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악이 번성하도록 허용하는 부패한 시스템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를 통해 우리가 치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례 서약을 온전히 실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을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금요일을 지킨 것이 겨우 몇 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후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원주민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해악을 지켜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까? 회개, 치유, 기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우리는 믿습니까?

연합감리교회 2016년 총회는 결의문을 통해 “미원주민들과 그들의 언어, 문화, 교회와 세상을 위해 주신 은사의 신성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모든 가족의 소망의 원천이며 자양분인 미원주민 가족들의 사역을 기뻐합니다. 180년

**우리는 그들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모든 가족의 소망의 원천이며 자양분인 미원주민 가족들의 사역을 기뻐합니다.**

이 넘는 기간 동안, 최초의 미국인들은 감리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데이비드 윌슨 목사가 최초의 미원주민 출신 감독으로 선출되어 현재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축토 부족(Choctaw Nation)의 일



미원주민선교주일

# 설교 자료

원인 그의 감독 성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또 하나의 증표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관계의 회복을 지속해 나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통해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해악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연회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며, 미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어 그들이 충만한 문화와 전통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

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피조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